

밀랍으로 피워낸 매화...茶香과 잘 어울려요

김창덕씨 이장우 고택서 '윤희매' 작업 7월 4일까지 '무등산 컵뷰'서 전시회



다음 김창덕 작가가 이장우 고택에서 밀랍을 녹여 윤희매를 만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윤희매

6월의 끝자락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있는 이장우 고택(광주민속자료 제1호)에는 은은한 매화 향기가 풍기는 듯했다. 멋스럽게 꾸며진 마당을 지나 사랑채로 들어서자 티벳의 유명한 명상 음악가인 나왕 케츄의 명상 음악이 흘러나와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윤희매(輪回梅) 작가 다음(茶愴) 김창덕(50)씨는 이장우 고택 주인장의 배려로 사랑채를 작업실 겸, 다실, 음악감상실로 사용하고 있다. 차와 음악, 그림, 윤희매를 벗삼아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사랑채에는 차와 밀랍이 만들어내는 묘한 향기가 흘렀다.

남원이 고향인 그는 14세 때 출가했다가 사람에게 눈이 멀어 1999년 파계했다. 그는 “출가한 것도 팔자였고, 파계한 것도 팔자였다”고 말했다.

법어사, 태안사, 개암사 등에서 수행한 그는 선화(禪畵)를 그리면서 미술을 접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정자공 스님에게 범패(梵唄)와 지화(紙花)를 전수받았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는 항상 차가 함께 있었다.

“제 작품은 모두 다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윤희매도 마찬가지죠. 1996년 무렵 차 관련 서적들을 70여 권 읽었습니다. 그때 이덕무 선생이 집필한 ‘윤희매집전’을 보고 윤희매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옛 선조들은 차자리에서 채화한 꽃을 감상하곤 했습니다. 또 거기에 어울리는 화병을 선택하고, 또 좋은 꽃을 선택하는 것까지도 다도 예법의 하나라고 생각했죠. 다도의 미학이 만들어진 것이 곧 윤희매입니다.”

이덕무 선생이 창제한 윤희매는 밀랍으로 만든다. 생화가 살아 있을 때 벌이 꿀을 채집해 벌집을 만들고, 꿀이 밀랍이 되고, 밀랍이 다시 매화로 피어나는 것이 불교의 윤희설과 같다고 해서 이를 붙여 밀랍화다. 차를 마시고, 즐기면서 만들어진 차 문화의 하나이다.

“윤희매의 존재를 알고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제작에 성공하게 됐어요. 지화와 선화를 했기에 생각보다 금방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밀랍을 구할 수 없어 촛농으로 윤희매를 만들었어요. 이후 담당에서 밀랍을 만들고 있는 빈도림씨로부터 밀랍을 구해 본격적으로 윤희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윤희매를 만드는 것은 매화 가치를 채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지에 맞는 화병을 선택하죠. 밀랍으로 가치를 감싸

고 또 밀랍으로 꽃잎 하나하나를 만들어 붙입니다.”

그는 매화가 필 때면 하루종일 매화밭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윤희매를 만들 때는 섬세한 손놀림이 필요하다. 직접 대추나무로 만든 매화봉으로 적당한 온도에서 녹인 밀랍을 짝어 불에 띄워 꽃잎 하나하나를 만든다. 꽃술은 끝을 염색한 노루털을 심어 표현한다. 만든 꽃잎들을 얹어 지져서 붙이고, 가지에 옮기면 흥매, 청매, 백매 등 윤희매가 완성된다. 꽃잎을 만들 때면 향긋한 꿀향이 퍼져 실제로 벌이 날아들기도 한다.

옛말에 “열을 연속 화려한 꽃은 없다”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윤희매는 그 기품을 오랜 세월 동안 자랑한다. 차에 대한 예찬으로 시작됐던 그와의 자리가 매화 예찬으로 이어졌다.

“수많은 꽃이 있지만 일품의 격에 매화가 있어요. 물론 원산지는 중국이지만 매화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천원권 지폐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은 퇴계 이황 선생만을 생각하지만 천원권에는 27송이의 매화가 도안 돼 있어요. 오만원권 지폐 뒷면에 나온 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화를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해온 것이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돈이 아니라 매화 향기를 담고 있다고, 돈을 주고 받으면서 돈이 아니라 매화 향기를 주고 받는다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한 달 전 밀라노 트리엔날레 디자인 전시관에서 열린 전시회에 참여했던 그는 최근에는 화병을 이용한 윤희매 외에도 캔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들로 작품 영역을 확장시켰다. 퍼포먼스를 통해서도 종합예술가로 거듭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이덕무 선생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윤희매 화첩을 만들 계획이다.

“제 예술의 뿌리는 차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이 커피숍만 찾을 것이 아니라 집에 작은 차 자리를 만들고 가족과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해요. 가족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요.”

김씨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윤희매’를 주제로 오는 7월4일까지 무등산 컵뷰에서 열린다. 한편 2009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여했던 그는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문의 062-223-594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젊은 연주자와 함께 하는 청소년음악회

광주시향, 26일 문예회관에서 장유정·조민정 피아노 협연

광주시립교향악단은 광주지역 청소년 협연자와 함께 가족음악회 ‘청소년음악회’ 무대를 연다.

이번 공연은 26일 오후 7시30분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김영연 부지휘자의 지휘로 열린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광주지역 음악가들에게 협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분야를 달리해 협연자오디션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지난 3월4일 청소년 피아노 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2명이 광주시향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먼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중 1악장’을 장유정(전남대 음악학과)과 함께 연주하고 이어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중 1악장’을 조민정(전남대



장유정



조민정

음악학과)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장유정은 광주예고를 졸업했고 호남예술제 고등부 금상, 광신대 콩쿠르 고등부 1등의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조민정은 제5회 금호주니어콘서트 독주회를 가졌으며, 유진음악문화재단 콩쿠르 최고상을 받았다.

마지막 무대는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다. 전석 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텐 엔터테인먼트’ 마술 공연 국립광주박물관 27일 ‘동감 story’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오는 27일 오후 4시 교육관 대강당에서 ‘동감 story’를 주제로 마술 공연〈사진〉을 진행한다.

이번 마술 공연에는 광주 지역에서 마술, 버블, 벌룬, 샌드아트, 마임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공연 기획사인 ‘한텐 엔터테인먼트’가 초대됐다.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사막 모래 마술, 칩otle 병과 물을 이용한 마술, 다양한 동물 풍선과 대형 꽃 풍선을 만나 볼 수 있는 벌룬쇼, 라쿤과 여러 가지 재미있는 소품을 이용한 코믹마임쇼 등 마술 이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공연 중 관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팔러코믹마술과 벌룬 팔러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문의 062-570-702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카페 수영장서 파티?

비트윈 디제이랩, 27일 무등산 컵뷰

비트윈 디제이랩(대표 김효중)은 오는 27일 오후 3~9시 광주시 동구 무등산 컵뷰에서 풀장 파티 행사를 진행한다.

‘Rock the Boat’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뜨거운 여름, 시외나 멀리 떠나지 않고 도심 한복판에서 즐기는 선상 풀장파티가 컨셉이다.

김 대표는 “20~30대들이 양지에서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비트윈 디제이랩은 디렉터, 감독, 칼럼리스트, 뮤지션, 댄서 등 각분야 아티스트들이 모여 만든 창작집단 기업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파티와 함께 풀장에서 수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또 비트윈디제이랩 소속 DJ들의 공연도 준비돼 있다. YJ폴댄스아카데미의 폴댄스 공연도 이날 만날 수 있다. 별도의 참가비나 입장료는 없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라다이스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대리점 **1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